

# 금융위기 20년주기 발생... “성장률 하향, 경보신호 아냐”

‘한국의 금융위기·신용주기’ 보고서  
신용주기 정점서 금융위기 발생  
韓 1990년대 이후 4번 금융위기  
경기 저점 5번, 신용주기에 주목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금융위기

금융 위기	기간	기산 시점
1992 투신사 환매사태	1992.05.27~1992말	투신사 특별용자(1992.05.27)
1997 IMF 구제금융	1997.11.21~1999.02.11*	IMF구제금융 신청 발표(1997.11.21)
2003 신용카드 사태	2003.03.13~2003말**	금융시장 안정대책(2003.03.13)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08.09.15~2009.06말	리먼 파산(2008.09.15)

\*무디스 신용등급 투자 적격등급으로 상향(Ba1~Baa3). \*\*NBER 발표 경기침체 종료.  
/자료=금융감독원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위기는 2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시장 역시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기를 걱정할 시점은 아니란 분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의 자체 사전검토 보고서인 ‘한국의 금융위기와 신용주기’에 따르면 1980년 중반 이후 신용 주기가 점차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는 약 2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신용주기는 통상적 경기주기의 약 3~4배에 달하는 20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금융위기가 신용주기의 정점 주변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약 20년에

한 번의 빈도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이 경험한 가장 큰 금융위기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다. 그러나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한국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 또는 자금 공급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을 동반한 위기까지 합칠 경우 1990~2000년대에 4번의 금융 위기가 있었다. 1992년에는 투신사들의 환매사태가 있었고, 2003년엔 신용카드 사태, 2008년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빈도로 보면 약 5~6년에 한 번꼴이다.

이들의 성격은 다소 다르다. 2008년

글로벌 신용 위기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1992년 펀드런(fund-run)과 2013년 신용카드 사태는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특히 신용카드 사태는 신용카드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카드채가 부실화됐고, 대규모 펀드 환매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다.

1990년 이후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5번의 경기 저점 중 3번이 금융 위기 기간과 일치한다. 최근 위기설 역시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인 것을 전제로 한다. 정부가 경기 부진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성장률을 줄 줄이 하향할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4차례 발생한 반면 경기 저점은 5차례로 경기주기보다 장기인 신용주기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총신용의 비율로 따져본 신용주기는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민간부채)이 공급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선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가장 큰 금융 위기였던 1997년 위기를 선행적으로 경고하는데 있어서도 신호가 뚜렷했다.

금감원 측은 “가계 신용 주기(중기는 1992년 및 2003년 위기, 기업 신용주기(중기는 1997년 및 2008년 위기와 보다 관련이 깊게 나타났다”며 “2008년은 복합적인 성격이 있지만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신호는 가계 부문에서 먼저 나타난 만큼 특정 부문의 신용 증가, 또는 신용 쏠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가계 부문의 신용공급 증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차주 기반 감독 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지만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제도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충격에 대비하는 목적으로는 자본 적립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특히 이미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LTV, DTI 등으로 직접 대응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신한銀, 수화 상담 등 장애인 맞춤 서비스

‘솔’서 장애인 친화영업점 정보 제공  
전담 창구 예약 등 ‘원스톱 서비스’

신한은행은 장애인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채널 솔(SOL)에서 장애인 친화 영업점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전담 창구 예약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솔(SOL) ‘장애인 맞춤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장애인 친화 영업점의 주소, 최적 방문 시간, 대기 고객 현황 등 정보 제공 뿐 아니라 번호표 발급, 전담 창구 예약 등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한은행은 챗봇 ‘솔메이트 오로라’에도 관련 콘텐츠를 탑재해 장애인 고

객들이 다양한 모바일 채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장애인 친화영업점은 수화 상담 시스템을 갖춘 영업점과 장애인 고객 전담 창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갖춰진 영업점 등 서울·경기 지역 소재 13개 영업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우리금융, IT 자회사 대표가 은행 CIO 겸직

### 우리금융그룹 IT 조직개편, 디지털경쟁력 제고

우리금융그룹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원 겸직 발령과 그룹의 IT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의 IT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이사가 은행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겸임하고, 은행 IT그룹 산하에 IT기획단을 신설해 IT기획단장이 우리에프아이에스의 은행서비스 그룹장을 겸임한다. 임원 겸직을 통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일원화 하고, IT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에프아이에스 개발부서와 대응하는 은행 IT개발지원부서(금융·디지털·글로벌·정보3개 개발센터) 신설 ▲우리에프아이에스 디지털개발

### 우리FIS·IT그룹 프로세스 일원화

본부 신설 및 디지털 개발부서 통합재편 ▲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간 상호인력과견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향상시켜 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의 윈윈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했다”며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IT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금융그룹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간편뱅킹인 위비뱅크를 새롭게 오픈 했고, 현재 모바일 뱅킹 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홍민영 기자



서울 우리은행 본점.

## 달러 환전 신청하면 집에서 배달 받는다

KB국민은행 외화 배달서비스  
미국달러·유로화 등 10개 통화

KB국민은행은 ‘KB-포스트(POST) 외화 배달서비스’로 환전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우대 및 배송비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KB-포스트 외화 배달서비스’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한 외화를 우체국 배달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리브(Liiv),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상담부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외화를 받을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6월 말까지 간편뱅킹 앱 ‘리브(Liiv)’를 신규 가입하고, 연말까지 배달서비스로 환전(USD, JPY, EUR)을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1회에 한해 환율우대율 100% 제공 및 환전



금액에 상관없이 무료로 외화 실물을 배달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배달지역을 전국(제주도 포함)으로 확대했고, 환전 가능 통화도 기존 6개 통화에서 총 10개 통화(미국달러, 유로화, 일본엔화, 중국위안화, 홍콩달러, 태국바트화, 싱가포르달러, 영국파운드, 캐나다달러, 호주달러)로 늘렸다. /안상미 기자

## 한화생명, 스타트업 해외 진출길 돕는다

‘글로벌 확장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한화생명은 드림플러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GEP(Global Expansion Program·글로벌 확장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GEP는 드림플러스가 지난 2014년부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한화그룹과 드림플러스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파트너십 체결은 물론 매출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GEP는 글로벌 쇼트 비디오 앱 ‘틱톡(Tik Tok)’이 파트너사로 참여한

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틱톡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본사와의 사업 협력 기회도 제공 받는다.

이밖에 롯데컬처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해 사업 제휴 기회와 지원 투자 검토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진출 모색을 위한 현지 체제비도 기업당 200만원씩 지원한다.

또 드림플러스의 담당 엑셀러레이터가 배정돼 밀착 지원하고 법무, 세무, 회계, HR, 홍보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제품, 서비스를 런칭한 스타트업 또는 국

내 출시 후 안정화를 이뤘고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GEP는 총 4개국에서 진행된다. ▲중국(헬스케어/인공지능/교육) ▲베트남(핀테크·미디어·헬스케어·리테일) ▲일본(핀테크·컨텐츠·F&B·헬스케어) ▲인도네시아(핀테크·미디어·헬스케어·리테일) 등 사업 분야에 맞게 지원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며 드림플러스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 등을 올리면 된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6월부터 8월까지 해외 사업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받는다. 총 4~8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hj89@